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3월 11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행18장 9-11절

설교제목 :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본문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회당장 그리스보와 같은 유력한 유대인의 집안이 개종을 하게 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신변을 더욱 더 위협하고, 협박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핍박이 거세지자, 바울은 두려움을 느끼고, 과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및 베뢰아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다른 곳으로 떠나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협박이나 훼방을 두려워해서 침묵하지 말고, 고린도에 머물러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에 일 년 육 개월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체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철 목사님은 왜 이러한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셨을까요? 오직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주님을 버리던 때에, 예수님처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서고, 가는 기준이 사명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이유가 사명입니다. 사명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을 봅시다. 11절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일 년 육 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일 년 육 개월을 머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로, 유대인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10절) 계속되는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심령이 위축되고 지칠대로 지쳐 있을 바울에게 주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은 더할 나위없는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10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결국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일 년 육 개월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 년 육 개월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사명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하고,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엡5:16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기회를 사라, 기회를 구속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위한 기회를 사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에 사명을 위해 밀도 있게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도 있게 산다는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평범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사명을 위해 밀도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길이가 아닌 무게로 재어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사명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일 년 육 개월의 세월은 사명에 헌신한 밀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에

사명을 위해 밀도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엡5:17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세월을 아껴 사명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주님을 뜻을 알았기에 일 년 육 개월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세월을 아끼는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름보다 바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빠른 성취가 복이 아니라 바른 경주가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시간은 모두 세월을 소비한 것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계속되는 고문과 순교의 상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매 순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 목사님께서서는 자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고문 때문에 주님을 위한 자신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목사님께서서는 자신의 가족과 목숨 때문에 주님을 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심에는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 삶의 평안이 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질까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이 방해될까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므로 침묵하지 말라는 주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참고 **행20:23-24**)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합니다. 사명이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게 기대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위해 밀도 있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바울이 고린도에 일 년 육 개월을 머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세월을 아끼라(엡5:16)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사명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사명을 위해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